

# 한국 쇼트트랙 '금금금금금'...세계 최강 빛났다



혼성 2000m 제주·남녀 1500m·남녀 1000m·여 500m  
최민정, 대회3관왕·장성우 남자 1000m서 통산 첫 금메달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내고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 전망을 밝혔다.

한국은 8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쇼트트랙 혼성 2000m 계주에서 첫 금메달을 딴 뒤 박지원(서울시청)과 김길리(성남시청)가 남녀 1500m, 최민정(성남시청)이 여자 500m에서 우승하며 금메달 4개를 휩쓸었다.

9일엔 남자 1000m에서 장성우(화성시청)가, 여자 1000m에선 최민정이 우승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 걸린 9개 금메달 중 6개를 따면서 역대 동계 아시안게임 쇼트트랙 최다 금메달 획득 타이 기록을 썼다.

한국은 1999 강원 대회와 2003 아오모리 대회에서도 6개 금메달을 획득했다.

6개 금메달은 당초 대표팀이 내건 목표치와 같다.

한국은 또 은메달 4개와 동메달 3개도 추가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은 아시아 최대 경쟁국인 중국에서 열렸기에 더 의미가 있다.

중국은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편파 판정으로 이득을 봤고, 한국은 희생양이 됐다.

이번 대회에서도 불리한 상황이 펼쳐졌다.

하얼빈 대회 쇼트트랙은 모두 오전에 열렸으나 한국 대표팀의 공식 훈련은 모두 오후로 예정됐다. 아울러 훈련할 때 영양 사기 반입을 저지당해 훈련

분석을 할 수 없었다.

특히 경기장 트랙이 좁아서 아웃코스 추월을 잘 하는 한국 대표팀에게 불리한 조건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메달 레이스 첫날부터 5개 금메달 중 4개를 싹쓸이하며 기선을 완전히 제압했다.

중국은 남자 500m에 출전한 린샤오롄(한국명 임효준)이 금메달 1개를 따는 데 그쳤다.

린샤오롄의 금메달은 중국 대표팀 동료 쑨웨이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밀어준 '반칙 플레이'를 한 덕분이라는 의혹에 휩싸였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규정에 따르면, 쇼트트랙 선수들은 경기 중 동료들로부터 '밀어주기'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페널티를 받는 등 제재가 이뤄진다.

동력을 얻은 린샤오롄은 앞서 달리던 박지원을 제치고 금메달을 땀.

심판진은 이 플레이에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 아쉬운 결과였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튿날 경기에서도 한국은 2개의 금메달을 추가했다.

여자 1000m에 나선 최민정은 아시안게임 기록을 두 차례나 깨며 우승해 대회 3관왕에 올랐고, 장성우는 남자 1000m에서 통산 첫 번째 시니어 국제 종합대회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길리와 박지원은 각각 은메달을 획득했다.



9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에서 열린 동계아시안게임 쇼트트랙 남자 1000m 결승에서 우승한 장성우와 은메달 박지원(왼쪽)이 태극기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녀 계주에선 다소 아쉬웠다. 남녀 대표팀 모두 결승선을 앞두고 중국 선수들과 충돌하면서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특히 남자 대표팀은 중국 린샤오롄의 거친 플레이에 휘말린 뒤 페널티 판정을 받았다.

남녀 계주에선 메달 획득에 실패했지만, 하얼빈

대회 성과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 준비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혼성 계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박지원, 장성우, 김태성(화성시청), 김건우(스포츠포토)는 병역 혜택을 받아 부담을 덜고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에 나설 수 있게 됐다.

2023-2024시즌 휴식을 취한 최민정도 복귀 후 첫 국제종합대회에서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하며 자신감을 끌어올렸다.

2023-2024시즌 세계 랭킹 1위로 메이저 국제종합대회에 처음 출전한 신홍 에이스 김길리도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연합뉴스

## '또 또 또 최민정' 아시안게임 기록 갈아 치웠다

쇼트트랙 최다관왕 타이·여자 500m 한국 최초 우승·AG 기록 4차례 경신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간판 최민정(성남시청)이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3가지 역사를 썼다.

그는 아시안게임 쇼트트랙 최다관왕 타이 기록, 여자 500m 한국 최초 우승, 아시안게임 기록 4차례 경신 등 굵직한 족적을 남겼다.

최민정은 8일 열린 쇼트트랙 혼성 2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딴 뒤 여자 500m에서 정상에 섰다. 그리고 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여자 10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3개의 금메달을 딴 최민정은 한국 쇼트트랙 선수로는 23년 만에 아시안게임 3관왕이 됐다.

아시안게임 출전 역사에서 한국 선수가 단일 대회 금메달 3개를 딴 건 김기훈(1990 삿포로 대회), 채지훈(1996 하얼빈 대회), 안현수(현 러시아 빅토르 안·2003 아오모리 대회) 3명뿐이었다. 4관왕은 나오지 않았다.

전체 종목 중 통틀어도 4관왕은 스피드 스케이팅 이승훈(알펜시아·2017 삿포로 대회)뿐이다.

최민정은 9일 여자 3000m 계주에 출전해 4관왕 대기록에 도전했으나 결승선을 앞두고 마지막 주자 김길리(성남시청)가 넘어지면서 아쉽게 뜻을 이루진 못했다.

비록 4관왕에 오르지 못했지만, 최민정은 전체 종목을 통틀어 한국 여자 선수 최초의 동계 아시안게임 3관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그는 한국 최초로 여자 500m 금메달도 목에 걸었다. 한국 쇼트트랙은 그동안 취약 종목인 여자 500m에서 단 한 번도 동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내지 못했다.

최민정 이전까지 최고 성적은 1999년 강원 대회에서 최민경이 따낸 은메달이었다.

최민정은 2017 삿포로 대회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냈으며 단거리 집중 훈련을 했지만, 결승 진출에 실패하며 고배를 마셨다.



9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최민정이 태극기를 두르고 세리머니를 하며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그리고 8년 만에 다시 도전에 나서 뜻을 이뤘다.

최민정은 이번 대회에서 아시안게임 기록을 네 차례나 달성하기도 했다.

8일 여자 500m 예선에서 43초321의 기록으로 판커신(중국)이 2017 삿포로 대회에서 세웠던 아시안게임 기록(43초371)을 8년 만에 새로 썼다.

이후 결승에서 42초885로 기록을 더 줄였다.

9일엔 여자 1000m 준결승에서 1분29초835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해 대표팀 선배 심석희(서울시청)가 2017 삿포로 대회 때 세운 이 종목 아시안게임 기록(1분30초376)을 깼다.

곧이어 여자 1000m 결승에서 1분29초637의 아시안게임 기록을 다시 썼다. /연합뉴스

## 광주FC, 공격형 미드필더 홍용준 영입

킬패스·강력 왼발 슈팅 등 강점

광주FC가 왼발잡이 공격형 미드필더 홍용준(21·사진)을 영입했다.

왼발을 주발로 사용하는 홍용준은 현대고·명지대 출신으로 좁은 공간에서 풀어나오는 능력이 탁월하며, 세밀하고 창의적인 플레이가 강점이다.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한 킬패스 능력에서도 호평을 받는 그는 강력한 왼발 슈팅 실력까지 갖춘 전형적인 공격형 미드필더다.

그는 명지대 시절에는 대한민국 U21 선발팀으로 발탁돼 모리스 레벨로 국제 친선대회에도 참가했다.

홍용준의 영입으로 U22 자원의 폭넓은 운용 폭을 넓힌 광주는 공격형 미드필더, 윙어 등 여러 포지션으로 활용해 스쿼드의 다양성도 높일 계획이다.

홍용준은 "K리그에서 가장 트렌디하고 선진적인 축구를 펼치는 광주에 입단해 매우 영광이다."



이번 시즌 영플레이어상을 목표로 달릴 것이고, 왼발의 대명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며 "신인답게 에너지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팬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양현준, 1골 2도움...셀틱, 레이스 5-0 압승

스코티시컵 8강 진출

양현준이 1골 2도움의 원맨쇼를 펼친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십(1부) 셀틱이 레이스 로버스에 대승을 거두고 스코티시컵(FA컵) 8강에 진출했다.

셀틱은 9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셀틱 파크에서 열린 레이스와 2024-2025 스코티시컵 5라운드(16강) 홈 경기에서 5-0으로 승리했다.

4-3-3 전술로 나선 셀틱의 왼쪽 날개로 선발 출전한 양현준은 후반 20분까지 65분을 뛰면서 무려 3개(1골 2도움)의 공격포인트를 따내는 만점 활약을 펼쳤다.

전반 6분 중원에서 이어진 공간 패스를 받은 양현준이 재빠르게 페널티아크 왼쪽 부근에서 왼발

로 넘어지며 반대쪽으로 쇄도하던 마에다에게 볼을 이어줬고, 마에다가 골 지역 정면에서 오른발로 골 맛을 봤다.

전반을 2-0으로 마친 셀틱은 후반 2분 만에 루크 맥코원의 쐐기 골이 나왔고, 양현준이 도움을 책임졌다.

양현준이 페널티지역 오른쪽 구석으로 파고들며 투입한 왼발 크로스를 맥코원이 골대 정면에서 오른발로 방향을 바꿔 득점에 성공했다. 양현준의 멀티 도움 순간이었다.

양현준은 마침내 후반 11분 오른쪽 측면에서 앤서니 말스틴이 투입한 크로스를 골 지역 왼쪽으로 파고들며 오른발 노스톱 슈팅으로 연결해 득점에 성공하며 이번 시즌 공식전 21경기에서 2골 3도움(정규리그 1골 1도움 포함)을 쌓았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환희 : 양홍길 개인전

일시 : 2025-1-15(수) ~ 2025-2-16(일)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시립교향악단 체임버 시리즈 I 'Cello Moments'

일시 : 2025-02-21(금) 19:30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

문의 : 062-613-8241